

송암교회 말씀묵상

- 이 달의 시 -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2022년 9월 12일(월)

이중적인 생활

찬송 440장

예레미야 7:1-15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3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러 가는 길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니까 일상에 행했던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숭배 등이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뻔뻔하게 예배의 장소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유다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이중적인 생활을 그칠 때, 주님께서는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 질문 : 나의 일상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 기도 : 주님, 나의 삶의 무너진 모습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9월 13일(화)

하늘나라 기둥같은 성도가 되려면

찬송 357장

요한계시록 3:7-13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12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17년이나 계속된 지진으로 초토화 되었고 언제든지 삶의 터전을 옮길 준비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제국의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혼합종교가 왕성하여 제2의 아테네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를 칭찬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8절) 황제숭배를 회유하는 사람들의 유혹도 물리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지진으로 불안해야만 하는 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고정된 삶이었기에 삶의 현장에서 빛을 드러내며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 질문 :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나요? 세상인가요? 예수님인가요?

- 기도 : 주님!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2022년 9월 14일(수)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찬송 406장

누가복음 6:9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9절)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회중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치유하십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힘든 인생을 이어 오던 사람이 온전해지므로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이던 이들에게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질문 : 우리 주변과 삶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 기도 :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2022년 9월 15일(목)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

찬송 502장

베드로전서 3:8-12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9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랑의 극적인 실천입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새 버전입니다. 악을 저지른 원수를 우리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위해 저주가 아닌 복을 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손쉽게 이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부단한 연단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원수를 사랑하기를 실패했다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그 다음엔 원수를 사랑하기로 또다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부르심을 받은 나는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 기도 :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그 받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9월 16일(금)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찬송 526장

예레미야 12:1-13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7절)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한 데에 비해 선한 사람들이 힘겨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라며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언제까지’라는 말은 긴 고통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탄식과 함께 나오는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탄식에 위로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괴로움이 불현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고통 받는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 질문 : 우리는 주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 기도 :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아멘.

2022년 9월 17일(토)

동상이몽

찬송 289장

마태복음 20:22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찾아와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가족들이 구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지시키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동상이몽입니까?

- 질문 :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은 어떻게 달랐나요?
- 기도 :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9월 18일(주일)

무엇으로 사는가?

찬송 314장

히브리서 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돈이 만사에 응용되는 유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10:19) 그러나 돈(money)은 ‘맘몬’이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즉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삼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돈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한데, 돈을 얻기 위해 생명을 해한다면 이것은 크나 큰 비극입니다. 이처럼 돈은 유용하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딤후6:10) 그래서 성도를 위한 권면에서 본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 질문 :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 기도 : 주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